

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

자기 자신이 행복을 원하고, 고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, 다른 사람도 행복을
바라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. 그대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남의 생명도 존중해
주어라.